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가 '사랑의 찬양제'로 이웃 돌기에 나섰다.

남가주장로협 제12회 사랑의 찬양제 개최

모금된 기금으로 불우이웃과 선교지 후원 예정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김용식 장로)가 16일 오후 5시 30분 중현선교교회(민중기 목사)에서 제12회 선교와 이웃돌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를 개최했다.

불우이웃과 선교지를 돕고자 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한 이번 찬양제에는 남가주장로성가단, 목사장로부부찬양단, 미주여성코랄, 남가주사랑의교회, 나성성결교회, 오렌지미션교회, 대광OB코랄, 남가주장로성가단중창단, 정신동문코스,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

교회 여성찬양대, 중현선교교회 등이 출연했다. 마지막 곡은 모든 출연진들의 '할렐루야' 연합 찬양으로 마무리 됐다.

노수길 장로(장로협 부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는 김용식 장로의 인사, 한철수 장로(직전회장)의 기도, 민중기 목사의 설교, 최종혁 장로(장로협 자문위원)의 헌금기도, 김광배 장로(장로협 회계)와 이정신 장로(장로협 행사위원장)의 헌금인도, 바이올린 김효정, 피아노 최형언의 헌금 특송

으로 진행됐다.

김용식 장로는 "오늘 찬양제는 우리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 주신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한인사회와 교회와 가정, 일터에 확산되기를 소망해본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찬양팀과 성가대 코랄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지구촌교회 진재혁 목사

"담임 내려놓고 케냐 선교사 떠날 것"

"아브라함의 다 드러진 모습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것"

분당 지구촌교회 진재혁 목사가 16일 설교 도중 '담임목사 역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이제 떠나려 한다'고 말했다.

진재혁 목사는 '축복의 삶! 믿음의 여정!(8)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의 '이사 번제(창 22:1-12)' 설교에서 "이 아침 여러분 앞에 서는 제 마음의 그 무거움은 아

브라함의 마음처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른다"며 "오늘 주일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4면에 이어서 계속]



은혜한인교회가 36주년을 맞아 선교사들을 위한 '은퇴선교관'을 개관했다.

은혜한인교회, 은퇴선교사 위한 보금자리 마련

은퇴선교관 봉헌예배...2층 건물에 16개 방 갖춰

56개국에 300여명의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한 은혜한인교회가 36주년을 맞아 선교사들을 위한 '은퇴선교관'을 개관했다. 이 선교관은 2층 건물로 총 16개 방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 및 세미나실이 갖춰져 있다. 선교관은 은혜한인교회 본당을 마주보는 곳에 자리잡았다.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은퇴선교관 봉헌예배를 13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이 자리에서 한기홍 목사는 "은퇴하신 선교사들이 실제 거처할 곳이 많지 않는데 선교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선교관을 짓게 됐다"며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시작하지만 은퇴 후에는 현실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광신 은혜한인교회 원로목사는 "선교지에서 고생한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선교 지원이 부족한 형편이지만, 사랑의 보답으로 선교관을 세우는 한날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 선교관은 20년 이상 파송받아 사역한 은퇴 선교사들이 심사를 거쳐 입주하게 되며, 입주 기간은 5년으로 노인아파트에 들어가기 전 한시적으로 사용된다. 김대섭 은혜한인교회 행정목사는 "현재 부부 선교사 2쌍과 독신 선교사 1명 등 5명의 입주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선교관은 지난 2017년 9월 기공예배 후 1년의 공사기간을 거쳤다. 총 공사비용은 250만불이 들어갔다. 이날 봉헌예배는 환영사 한기홍 목사, 대표기도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말씀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축사 Doug Chaffee, Mayor(City of Fullerton), 이서 목사(OC교회 회장), 감사의 말씀 김태원 목사(GMI 은퇴선교사), 은퇴선교관 건축일지 설명 권혁석 장로(건축위원장), 축도 김광신 목사(은혜한인교회 원로목사), 선교관투어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100여명이 넘는 관계자들과 외빈들이 참석해 선교관 완공을 축하했다.

토마스 맹 기자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 (562)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에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미주통일선교아카데미 Unification Mission Academy
2018 가을학기 학생모집

미주통일 선교아카데미는 세계선교와 북한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방향, 효과적인 사역의 방법들을 제시하며, 북한선교와 사역현장에 참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워진 전문기관입니다.

- 교육과정** 수업은 1년 2학기제, 1학기에 10주 북한선교 집중강의, 북한선교 포럼, *통신강좌 가능(강의노트 및 강의 CD발송)
- 학기일정 및 강의장소**
 - 오렌지카운티 캠퍼스
 O.C Campus: 10/1-12/3 10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7:3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 L.A 캠퍼스
 L.A Campus: 10/2-12/4 10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8:00
 글로벌선교교회 (23425 Sunset Crossing Road, Diamond Bar, CA 91765)
- 강의내용**
 - 북한선교와 관련된 선교학의 이론
 - 북한개론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역사, 제도 및 국제관계)
 - 북한사역의 현장 (구호, 의료, 교육, 비즈니스, 개발 등등)
- 학비/특전** 한학기에 \$100 (탈북자, 조선족은 장학금 지급) 기타 비용은 학교 부담
 수료후 북한 방문과 중국 사역현장 참관 가능
- 5. 입학/원서** 제출서류: 입학원서1통(www.igm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진1매, 신앙간증문(구원간증/북한선교에 대한 비전포함)
- 6. 등록문의** O.C Campus 문의: 김상은 목사 / 213.479.2990 / gedda2002@hotmail.com
 L.A Campus 문의: 이진경 목사 / 657.252.2085 / jkleee.gmc@gmail.com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라, 북한"

구분	O.C (주님의빛교회) (월요일)	L.A (글로벌선교교회) (화요일)	강사
1. 개강예배 / 강의	10월 1일(월)	10월 2일(화)	김대평 목사 (비위선교회 공동대표)
2. 강의	10월 8일(월)	10월 9일(화)	김의혁 목사 (Connect Korea Together 대표)
3. 강의	10월 15일(월)	10월 16일(화)	김정환 목사 (풀러신학대학원 부학장)
4. 강의	10월 22일(월)	10월 23일(화)	이상명 총장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5. 강의	10월 29일(월)	10월 30일(화)	피터 양 목사 (YM 시애틀 디렉터)
6. 강의	11월 5일(월)	11월 6일(화)	윤상혁 박사 (평양의대 척추의료원, 신앙하나재단)
7. 강의	11월 12일(월)	11월 13일(화)	김요한 목사 (통일선교 전략협의회 사무총장)
8. 강의	11월 19일(월)	11월 20일(화)	박찬모 총장 (평양과기대 명예 총장, 전 포항공대 총장)
9. 강의	11월 26일(월)	11월 27일(화)	전영일 박사 (RS 국제 화해전략 연구소장)
10. 강의	12월 3일(월)	12월 4일(화)	허문영 박사 (평화한국 대표)

미주통일선교아카데미
 Unification Mission Academy, USA

만남의교회, 무료 결혼식 열어 사랑 나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샌퍼난도 벨리에 위치한 만남의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무료 결혼식을 주최했다.

9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샌퍼난도 벨리에 위치한 만남의교회(이정현 담임)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결혼 예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이웃을 위해 사랑의 무료 결혼식을 열었다. 이날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현재 5명의 자녀와 쉐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만남의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결혼식 공고를 보고 지원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다니엘 서 목사

(교육부 목사)의 주례로 진행된 예식 이후 리셉션 시간에는 하객들이 결혼을 축하했다. 이 행사를 준비한 이 교회의 웨딩미션팀은 신청사연, 소득수준,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혼식을 올릴 부부를 선정했다. 올해 12월 8일에 두번째 무료 결혼식을 열 예정이며 매년 4번 무료결혼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웨딩미션팀은 결혼식과 신부의

웨딩드레스, 신부화장, 웨딩촬영, 피로연 등 결혼예식비용을 모두 지원하며 예식은 한어 주례(이정현 목사)나 영어 주례(Daniel Suh 목사) 중 선택할 수 있다. 결혼식 이후에는 혼인신고 등 법적인 부분까지 도와 준다. 웨딩미션팀 관계자는 “어려운 사정으로 결혼식을 드리지 못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교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이 행사를 준비했다. 이 행사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그들도 기쁘고,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에 우리가 받는 기쁨이 더 크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 교회는 수시로 무료 결혼식 신청을 받고 있으며 결혼 예식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부, 예비부부는 만남의교회 홈페이지(www.http://mannamchurch.com)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주디 한 기자



이날 결혼식을 올린 스테파니 라미네즈와 오스카 안드레드가 소감을 전했다.

LA아버지학교 동부지역서 8년 만에 다시 시작 “아버지의 영성과 영향력 회복해야”



LA 두란노아버지학교101기 사진 ©두란노아버지학교 제공

2011년, 63기를 마지막으로 LA 동부지역에서 멈추었던 LA아버지학교가 9월 1~2일과 8~9일에 걸쳐 8년 만에 인랜드교회에서 다시 열렸다.

LA아버지학교 14기를 수료한 양태진 형제(선한청지기 장로)의 진행과 LA 63기를 수료한 김경수 형제(인랜드교회 장로)의 개설 협력으로 다시 시작된 이번 101기 아버지학교에는 LA 동부 지역의 아버지들이 참가했다.

첫번째 강사로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가 모임을 인도했고, 선한청지기교회에서 13명, 인랜드교회에서 14명, 아름다운교회 4명, 감사한인교회, 동부 사랑의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글렌데일의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서 참가해 총 42명이 수료했다.

첫번째 강의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끈 송병주 목사는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야 함을 강조했으며 두번째 강의를 이끈 이병일 목사(LA Men’s Jail의 Chaplain)는

“잘못된 남성상으로 인해 파괴된 가정의 사례와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전했다. 세번째 강의에 선 윤희철 목사는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해야 함을 전했으며, 부부간의 화합과 축제를 위해 진행된 마지막 날에는 정희성 목사(LA마음연구소 소장)가 아버지의 사명과 아내의 협력을 통한 가정의 회복에 관해 말했다.

한인을 넘어, 영어권, 스페니쉬권 그리고 중남미와 러시아 등 해외에 이르기까지 저변을 넓혀 가고 있는 미주 아버지학교는 현재 전세계 70여 개국에서 30만명 이상에게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과 남성의 사회적, 가정적 책임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LA에서는 9월 14일부터 2박 3일간 영어권 아버지학교가 열렸고 10월에는 캐나다, 하와이를 비롯한 미국 전 지역과 중남미에 총 15 지역에 아버지학교가 개설될 예정이다. 올해 미주 아버지학교에서는 약 2천명의 수료자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스바 화요여성 첫 찬양예배 LA비전교회에서 10월 2일 화요일 첫 모임

미스바 화요 여성 첫 찬양집회가 10월 2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LA비전교회(김대준 담임, 520 S. La Fayette Park Pl, #200 LA, CA, 90057)에서 열린다. 미스바 화요 여성 찬양집회는 문정란 목사(LA하늘성도교회 공동담임), 정유나 전도사(LA하늘성도교회, 교육부 전도

사), 황화진 집사(주안예교회)가 함께 기획한, 여성의 영성 회복을 위한 집회다.

이 모임을 계획한 문 목사는 “미스바는 사무엘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한 곳이다. 사무엘의 금식과 회개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의 우상이 제하여지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다.”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겼지만,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산다고 했지만 가정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 여성의 영성이 얼마나 회복되는지에 따라 가정이 얼마나

바뀌는지 경험하면서, 미스바에서 처럼 여성이 찬양과 기도로 치유받고 영성을 회복해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집회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정 전도사는 “여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자리가 많지 않다는 생각에 이 모임에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 집사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찬양을 통한 회복을 많이 경험하고 이런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문

목사가 집회를 제안해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집회는 모든 스텝들이 여성으로만 구성되며 여성들만 참여 가능하다. 교회에 상관없이 여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다.

현재 이 집회팀은 찬양팀, 악기팀, 미디어팀 스텝을 모집하고 있다. 관심 있는 분은 문정란 목사(213-344-6313)에게 연락하면 된다. 주디 한 기자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제4대 담임목사 이석부
파송 감사예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를 이 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석부 담임목사 파송감사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성도 일동 -

집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영어예배	1부 오전 9:45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속회	월 1회 각 가정

금란 문화/체육 교실

체조(친교실)	화 오후 6:15
베드민턴(친교실)	목 오후 7:15
섹소폰(아동부실)	목 오후 7:00
클래식기타(본당)	토 오전 8:00

교회학교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아동부	주일 오전 11:00
Youth	주일 오전 11:00
Bible Study	오후 1:30
	금 오후 7:30
Awana	수 오후 7:30
한국학교	토 9:00~1:30
금란 Pre-School	월~금 7:30
T.(310)219-1815	

■ 일시 : 2018년 9월 30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 문의 : T(310)973-5106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Kum Ran United Methodist Church

회환은 정중히 사양하며, 현금해 주시면 선교현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Carpool을 부탁드립니다. www.krumc.org

“사모됨을 사모하라” 미드웨스턴 사모 학교 신설

“교회 사역에 실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모 양성이 목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이 2019년 봄학기부터 사모학교 과정을 새롭게 개설한다.

“교회를 위하여”란 핵심 가치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을 추구해 온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이 2019년 봄학기부터 사모학교 과정을 새롭게 개설한다.

미주 신학계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미드웨스턴 아시아부는 3년 전에 한국 외 지역으로는 세계 최초로 성경사역학 철학박사를 한국어로 개설했고, 지난 해에는 목회학 박사과정 내에 선교목회학, 설교목회학, 목회상담학 전공 과정을 개설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가치로 중국부를 신설하여 중국인들을 위한 신학 교육에도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제는 목회자의 사모를 대상으로 하는 certificate 과정을 신설한다. 미드웨스턴 아시아부 학장인 박성진 교수는 “사모는 한국 및 한인 교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간과된 자리라 생각한다. 현대 목회란 목회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아니라 사모와 성도들이 함께 도와야 하는 협력 사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를 가

장 잘 알고 목회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모들의 실제적이고 건설적인 협력은 목회자의 사역에 매우 중요함에도 사모란 존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된 평가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사모의 성경적 정체성과 리더십 확립에 대한 교육은 사회가 급변할수록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사모 학교는 교회 사역에 실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모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 학교는 총 12학점(10과목)으로 진행되며 열리는 과목으로는 성경의 여성들, 성경적 가정 세우기, 사모의 역할과 정체성, 귀납적 성경 연구, 유아 이해와 교육, 청소년 이해와 교육, 성경적 자녀 양육, 여성 상담, 결혼과 가족 상담, 영적 소그룹 세우기가 있다.

박성진 학장이 본 과정의 커리큘럼을 완성하기 위해 70여명의 사모들과 세 차례에 걸쳐 토의한 결과 답게 매우 실제적인 과목으로 구성 되어 있고 등록금도 재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학점 당 50불이다. 특별히 본 과정을 이수한 사모가 미드웨스턴에서 석사과정을 계속 공부하는 경우, 석사원에서 기독교 교육분야에 6학점을 인정해 주는 특전도 함께 주어진다. 미드웨스턴은 남침례회(SBC) 산하 신학대학원으로 규모 면에서 미국 3대 신학교에 속한다. 북미 주류 신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미국 내 중북부 지역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최고 인가기관인 HLC(Higher Learning Commission)에 모두 정식 인가되어 있다. 현재 한국부는 630여 명으로 한국어로 제공하는 학위 과정 가운데 북미 최대 규모이며, 실제적 이면서도 탁월한 전문성이 검증된 교과과정 및 교수진으로 정평이 나 있다. 미드웨스턴 사모 학교 입학은 학교 웹사이트(www.mbts.edu/ks)나 최세롬 사모(이메일: lchoi@mbts.edu; Tel.: 816-414-3754)에게 문의하면 된다.

주디 한 기자



미주CGNTV 개국 13주년 및 'The 부르심' 200회 특집 공개방송이 열렸다.

‘The 부르심’ 200회 특집 공개방송 성황리 열려

지난 15일 오후 5시 어바인 온누리교회에서 미주CGNTV 개국 13주년 및 'The 부르심' 200회 특집 공개방송이 열렸다.

주최측은 2014년 10월 15일 첫 방송을 시작한 신앙간증프로그램 'The 부르심'이 200회를 맞아, 'The 부르심' 출연자와 가족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콘서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The 부르심' 출연자와 그들의 가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레위남성성가단이 축하공연을 했으며 권혁빈 목사(어바인온누리교회)가 메시지를 전하고 영 김의원이 축사를 했다. 이어서 지난 79

회와 80회 'The 부르심'에 출연한 한 다 한 권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의 이야기를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감사패 증정 후에는 엘트리 챔버(ElTree Chamber)의 축하공연에 이어 뮤지컬 배우 류승주 자매(187회 출연자)와 소프라노 최정원(136회 출연자)의 공연이 이어졌다.

CGNTV 대표이사 이용경 장로는 “그동안 한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프로그램이 꾸준히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CGNTV는 이곳 한인교회와 한인들의 영적 성장에 물론 차세대 신앙교육과 성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방주교회 주최 ‘제 7회 한가위 웃놀이 대회’ 개최



방주교회의 사랑의 점심모임팀 주최로 제7회 한가위 웃놀이 대회가 열렸다.

방주교회(김영규 목사 담임)의 사랑의 점심모임팀 주최로 9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리틀도교 갤러리 아몰 2층 이벤트 홀(333 S Alameda St., LA)에서 “제7회 한가위 웃놀이 대회”가 열렸다.

한가위 웃놀이 대회는 LA자바시장의 한인업주들의 후원 하에 2012년 첫대회가 열린 이래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가 됐다. 한 팀 당 선수 4명과 말 쓰는 사람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우승팀에게는 상금 300달러와 우승 트로

피, 준우승 팀에게는 상금 200달러와 준우승 트로피, 장려상에게는 상금 100달러와 트로피가 수여된다. 또한 매 게임마다 추첨을 통해 푸짐한 추첨선물도 증정한다.

이 대회를 주최하는 방주교회 사랑의 점심모임팀은 2009년 9월 첫 ‘독거노인의 사랑의 점심 나누기 모임’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중단하지 않고 매월 이 모임을 주최하고 있다. 이번 웃놀이 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 (213-663-3301/ 310-836-8342)로 하면 된다.

LA한국교육원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 연다

LA한국교육원(원장 오승걸)은 한가위를 맞아 한인동포 자녀들이

한가위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을

22일 오후 2시에 LA한국교육원 옥외 주차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가위 한마당은 교육원이 운영하는 뿌리교육 프로그램 참가 학생을 비롯해, 관심 있는 한인 학생 및 학부모 등 모두 참석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제기차기, 팽이치기, 굴렁쇠놀이, 칠고놀이, 종이접기, 사물놀이, 공기놀이, 윷놀이, 떡메치기 등 12개 한국 전통놀이가 준비된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한달 하세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남려 드리겠습니다.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관리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철저 정

현대 HYUNDAI
할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미디어벽,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예인교회 Easter SUNDAY 예수, 부활하셨네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81>

2018 KACH 총회를 다녀온 보고서(1)

필자는 지난 주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KACH(미주노숙자한인선교단체협의회) 총회의 강사로 초청받아 다녀왔다. 이 모임은 미국과 캐나다의 도시선교의 일환인 노숙자들을 섬기는 한인 선교 단체장들의 정기 연합모임이다. 매년 도시들을 돌면서 정기총회로 모인 지 이미 십수년이 되었다. 올해는 캐나다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Vancouver Potter's Place Mission"(테보라 정 목사)이 호스트를 맡아 총회를 가졌다. KACH의 멤버로 엘에이에서는 대표적 노숙자선교회인 울타리선교회(나주목 목사)가 소속되어 있고 필자는 울타리선교회의 운영이사로서 섬기고도 있다.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땅 끝이 저 열방의 끝인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의 오지 등의 지역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어쩌면 우리 도시인들 곁에서 가장 버림받고 살고 있는 노숙자들이라 할 수도 있겠다. 우리 미국만 해도 세월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각 도시마다 노숙자들의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를 소개한다면 다운타운 옆길로 Hastings St.이 몇 마일로 길게 뻗어 있는데, 그 길 양옆으로 노숙자들의 텐트촌이 계속 이어져 있는 한복판에 선교회의 3층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1년 365일 날마다 오전 11시와 저녁 9시 2회씩 예배시간을 두고 있다.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과 인도자가 갖춰져 있고 지역교회 다민족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한다. 예배에 참석하는 노숙자 형제들의 수가 수백 명에 이르는데 그들의 두끼 식사를 교회와 학생 봉사자들이 조를 짜서 돌아가며 준비하는 장면은 감동을 넘어 눈물이 났다.

토기장이집 선교회는 지난 20년간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지경이 넓어지면서 거리선교, 절기 축제, 또한 노숙자 중에 목회사역을 꿈꾸는 이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며 3년간의 바이블 학교를 운영한다. 또한 연 1회 6개월간의 원주민단기선교훈련을 갖고 배출된 훈련자들을 캐나다에 파려 사는 원주민지역으로 단기선교를 보낸다. 그때 원주민 청소년 자녀들 수백명을 대상으로 4박 5일의 선교캠프를 연다.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다. 또한 선교회가 주관하여 훈련받은 원주민 청소년 대표들을 뽑아 한국과 미국 등 비전 여행을 시키므로 차세대 글로벌 지도자 대열에 세계를 인도하는 사역들을 이 선교단체가 하고 있다. 어느 기성교회도 하기 힘든 엄청난 선교사역이다. 놀라운 일이었다. 땅끝 선교라 할 수 있는 노숙자 선교사역에 교회들이 더욱 관심을 모을 때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휘게! 휘바! 오캄! 라곰!

행복학에 관심을 가지면 북유럽 국가들이 보입니다. 행복 선진국들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성숙한 문화를 가진 유럽의 나라들의 행복이 빛납니다. 이런 나라들은 사회 구성구석에 깊게 뿌리 박힌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숙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행복 선진국의 행복 정신을 살펴보면 자족과 감사의 정신 및 배려와 존중 그리고 여유와 관용의 정신의 토양 위에 행복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그런데 행복 선진국들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바탕은 같지만 각국의 형편과 여건에 맞는 행복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각국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이 문화가 되고 각국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각국마다 행복을 풀어가는 독특한 핵심어(Key words)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행복 키워드의 의미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보다는 마음자세요 생각이요 철학입니다. 각국 행복 키워드로 행복의 개념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덴마크의 휘게(Hygge)입니다. 휘게의 문자적인 의미는 아늑함, 여유로움, 파스함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휘게스러운 행복의 삶을 추구합니다. 덴마크는 추운 겨울과 아주 추운 겨울 두 계절 밖에 없습니다. 아주 추운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휘게(파스함)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파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겨울의 파스한 햇볕처럼 이웃과의 관계나 삶의 현장에서 파스함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파스함으로 대표되는 휘게는

너그러움이요, 넉넉함이요, 배려요, 여유요 재미요, 기쁨입니다. 그들에게 '휘게'는 행복으로 나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상사에서 휘게스러움을 추구합니다.

둘째 핀란드의 휘바(Hyva)입니다. 휘바의 문자적 의미는 "좋다" "좋아!"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가진 긍정과 기쁨의 정서를 나타냅니다. 늘 눈이 내리고 맑은 날이 거의 없는 긴 겨울의 나라 핀란드 사람들은 상쾌함을 원했습니다. 사우나를 즐기는 이유도 상쾌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중충한 겨울 날씨 속에서도 핀란드 사람들은 '휘바!'를 외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환경이 행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들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을 계획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행복을 위해 쾌활한 정서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휘바 정신입니다. 그들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무한 긍정의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삶의 현실을 자족(自足)하며 누리는 행복입니다. 셋째 프랑스의 오캄(Au Calme)입니다. 오캄은 "조용한" 혹은 "한적한"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평안한 상태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프랑스인들은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평안을 행복으로 정의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관용(寬容: Tolerance)합니다. 기대 수준을 하향 조정함으로 행복을 구가(謳歌)합니다. 아울러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도 관용합니다.

넷째 스웨덴의 라곰(Lagom)입니다. 스웨덴에서 라곰은 '적절함' '충분함' 그리고 '딱 알맞음'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행복학과 관련해서는 소박한 스웨덴 사람들의 행복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적당함은 대중의 의미가 아닌 적절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적당한 상태가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스웨덴은 무리하지 않는 행복을 말합니다. 이는 절제와 중용을 미덕으로 삼는 한국의 선비 정신과 상통합니다. 은은히 지속되는 스웨덴식 행복입니다.

휘게! 휘바! 오캄! 라곰! 유럽 여러 나라들의 행복 키워드들입니다. 각 나라의 행복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고 자족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들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즐기고 누립니다. 행복의 비결은 허락된 삶을 만끽하는 마음자세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면에 이어서] 마지막 길을 함께 가면서 온전히 다 드리고 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드렸던 아브라함을 생각한다"고 전했다.

진목사는 "몇 주 전에 리더십들과 이미 나눴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에게 무척 큰 충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오늘이 아브라함의 다 드러진 삶의 모습처럼,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처음 지구촌교회 부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이야기가 있었다. 왜 목사님들이 크고 좋은 교회 가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때문에 갈 수 있으리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진재혁목사는 "지난 8년 동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축복의 시간들을 가졌다"며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멘토링과 기도와 사랑, 동역자들, 과분한 사랑, 성도님들의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아프리카 케냐의 저주의 대륙의 어두운 영혼들을 향해 다시 믿음의 길을 떠나려 한다"고 이야기했다.

진목사는 "떠남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며 "그러나 오늘 그 떠남이 힘든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진재혁목사는 "지금 가장 행복

하고 가장 축복된 시간,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성장하고 건강한 지구촌교회, 그래서 더 떠나기 힘들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며 "그 힘든 결정 앞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무엇보다 지구촌교회 전에 그 어려웠던 승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숙함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게 건강한 교회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였음을 기억하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의 구체적인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교회 측은 "아직 제조회라는 공식 절차가 남아있기에 확정된 것은 없다"며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대웅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업,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사랑실천의 생명운동

요한일서 3:13-2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요한일서 3:13-24

사랑과 미움이 상반되는 표현으로 사용되듯이 사랑의 결과는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어져가고 미움의 결과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본문 13,14절은 아직도 사랑과 미움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미워함을 받는 사람보다도 계속 미워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9에 “하나님께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으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으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試金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심을 입은 사람 즉,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씨(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속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받고 구원 얻었다고 간증하며 자랑했으면서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은혜도 구원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죽이고 싶은 미움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파멸을 일삼는 마귀 앞잡이에 불과한 신분입니다.

흔히 사회로부터 교회가 외면당하고 전도하면 배척당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치고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이고 날강도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앙 인격도, 양심도 없고 의리도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행동은 옛날 죄악근성을 따라 마귀가 시키는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10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이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

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고 하십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길래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가인은 농사지은 것을 속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땅에서 난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속량하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납 하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했음에도 그 아우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제사를 드린 일로 인해서 자기 제사가 거부당한 것처럼 악한 생각을 하고 동생을 쳐 죽여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결함이 있거나 정성의 부족함이 있어서이지 상대방이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근본이 벌써 마귀에게 사로잡혀 이성을 잃었고 분별력을 갖지 못했으니 옳고 그름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의 행위가 악했고 아벨은 의로웠습니다. 악인의 의인을 죽인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악한 마귀가 공중권을 잡고 불의와 죄악으로 지배하는 곳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아벨을 죽였듯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로부터 미움과 환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11-12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당하는 핍박을 감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못해서 남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 실수한 죄값으로 당하는 행패를 핍박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신이 잘못하여 맞을 짓을 해서 얻어 맞으면서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 받았고 성령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 즉 마귀 그늘에 사로잡힌 존재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자라나면 살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살인의 동기는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그 마음속에 미움으로 살기(殺氣)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한 생명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도 버리시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동정탄생으로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하여 죄 없는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구속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또 빼앗기신 그 목숨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속받을 수 있는 죄 값을 지불하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사랑실천을 통한 생명운동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순교하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성과 때문에 내 육체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미움의 씨가 자라나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런즉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참 사랑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16절에서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육신의 목숨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씨(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이 다음에 생명의 부활로 되살리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명 살리는 운동을 위해서 내 목숨 투자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계시면서 아무개를 도와주라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데 그냥 거절하고 뿌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인은 남을 죽이고 결국 그 죄값으로 나도 죽고 멸망하는 비극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독약이 됩니다.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15:13-14)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할 것이며 온전히 변화된 행동과 성숙한 인격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내 모든 것을 모두 바쳐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영성혁명의 현장”

기독교대안성결교회 백승교회 “가족 치유 부흥회” 2018.9.24 (월) - 2018.9.28(금)

오전 11:00 | 오후 7:30

충남 보령시 남포면 봉덕삼헌길 191 041) 931 0195~6 보령 백승수양관

이순희 목사
가족 모두 우울증과 기술, 병화, 방황의 고난에 시달리다 완전히 치료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해-님

양귀녀 권사

김수덕 권사
각종 심각한 증상에 빠진 가정을 치료하시고, 알 수 없는 용성과 영적 현상들을 분별하게 하셔서 영혼의 강건함을 회복시키신 해-님

송미호 권사
죽고 싶은 남편을 자랑하고 싶은 남편으로 바꾸시고, 세 자녀를 믿음 안에서 세우시며 신앙의 영문가로 세우신 해-님

박재하 집사
한 번의 예배로 10년간의 컴퓨터 중독을 치료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심오로 변화되어 행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해-님

최선욱 권사
알콜중독에 빠진 폭력적인 남편, 두려워했던 자녀들,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찬양하는 가정을 세우신 능력의 해-님

한수선나 목사
영적으로 방황하던 아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연합하는 가정을 이루신 해-님

황미향 집사
수신년 간을 담았던 이단으로부터 영적 결박을 완전히 끊어주시고, 자녀의 우울증과 모든 영적 질병을 고쳐주시며 진리의 질서를 세워주신 해-님

이순희 목사님 사역 일정

캐나다 백승교회 2018/10/10(수) - 2018/10/20(월) 오후 7:30 담임 최우일 목사 +1 647-637-4013

부곡제일교회 2018/10/28(주일) - 2018/10/31(수) 오후 7:30 담임 유병목 목사 031)462-0691

인천 백승교회 2018/11/12(월) 오후 - 2018/11/15(목) 오전 11:00 | 오후 7:30

보령 백승수양관 2018/11/19(월) 오후 - 2018/11/22(목) 오전 11:00 | 오후 7:30

변화의 현장
시기, 미움, 원망, 교만 등 내적 치유로 예수님을 믿는 성품으로 변화, 열매 맺는 살로의 변화와 성숙

치유의 현장
알코올, 게임 등 각종 중독에서 자유, 기억상실증, 우울증, 및 정신질환 치료, 온갖 영육의 질병 치유

기적의 현장
찬양, 설교 등의 훈련, 방인 신앙 및 갖가지 은사 체험, 축기구역 영적전쟁의 체험적 이해

하루 3분 거꾸리 운동으로 허리통증과 혈액순환을 한번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허리통증 해결

Z-UP 전동 거꾸리

- 손가락 하나만으로 작동하는 전자동 전동식
- 한국 인기 운동기구 - 노약자분들의 필수품
- 척추, 혈액순환, 근육이완, 청소년 성장촉진에 좋습니다!

전동 거꾸리로 평생 허리통증에서 해방!

1. 활발한 운동으로 디스크가 눌리는 현상이 발생할 때, 반복적인 거꾸리 운동으로 척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통증을 유발하던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간격이 넓어진 척추공간에 통증이 줄고 회복력을 자연히 높혀줍니다.
 3. 거꾸로 매달리는 것은 요가에서 물구나무 서기와 똑같은 운동입니다. 운동하는 습관은 나를 지킵니다. 장수로 가는 길목입니다. 1일 1번 물구나무 서기하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머리를 심장보다 낮은 위치로 이동, 정맥 팽창을 방지**해줍니다.
- 특히,
1. 평소 허리에 손을 짚고 일어나거나 걸으시거나 2. 목직한 허리 느낌이 있거나 허리가 빠근하신 분
3. 산악훈련, 등산, 심한 육체노동 후, 전신 혈액순환, 전신 근육 피로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용 가능한 전동 거꾸리 효능 (계속 반복 운동을 했을 경우)

- | | |
|--|--|
| 1. 머리의 혈행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 6. 거꾸리 운동 후,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 2. 전신이 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 7.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도 충분한 운동효과를 유발합니다. |
| 3. 척추의 곡만이 정렬될 수 있습니다. | 8.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의 발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장판 자극) |
| 4. 추간판 디스크의 간격이 이완, 확장되고, 신경눌림이 없어져, 허리가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 |
| 5. 전신 근육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근 및 어깨 회전 근계골 등) | |

손쉽게 하는 전동 거꾸리로 물구나무서기, 어떤 효과가 있을까?

★ 척추기능향상

평소 직립 보행으로 하체에 혈액이 모이게 되는데, 물구나무를 서다보면 혈액이 머리에도 공급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이를 척추가 지탱해 주기 때문에, 척추기능이 향상되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키가 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염, 코막힘 해소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코막힘이나 비염 치료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2717 Olympic Blvd., L.A., CA 90010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천종산삼 옆)
Tel. 213-382-7100, 213-700-8382



후원의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2018 카네기홀 세계찬양대합창제 후원의밤 성황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뉴욕기독교방송(CBSN, 사장 문석진 목사)이 오는 23일 카네기홀에서 개최하는 '제2회 세계찬양대합창제'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뜨겁다.

세계찬양대합창제는 지난 2016년에 이어 2년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올해는 한국에서 5개팀, 미주에서 4개팀이 참여하며, 행사를 통한 수익금으로는 사회봉사 단체를 돕게 된다. 2016년 첫 행사에서는 3만불의 수익금을 소외된 이웃들에 전달했으며 올해는 후원규모와 단체를 더욱 늘릴 예정이다.

9일 오후6시 대동연회장에서는 '세계찬양대합창제 후원의밤'이 개최, 3백 여 명의 뉴욕-뉴저지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카네기홀 찬양합창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기도했다.

준비위원장인 양민석 목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찬양제의 목적은 영혼이 있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데 있다"면서 "현재 정기적으로 준비기도회를 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고자 하고 있다. 마지막 9차 기도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민석 목사는 "이번 찬양제를 통해 카네기홀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임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하고 있다"면서 "또 이번 찬양제를 계기로 교계의 화합과 일치와 장을 만들고 무엇보다 무대에

서만 불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지속되는 찬양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설교를 전한 박효성 감독은 '영혼으로 찬양하라'는 제목의 메세지에서 "찬양은 기교가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나라 온 것이어야 한다"면서 "찬양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행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교협 회장 이만호 목사는 축사를 통해 찬양으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가 진행되는데 대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뉴저지목사사모합창단 고문 장석진 목사는 바쁜 일정 중에도 찬양을 위해 노력하고 참여하는 합창팀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3부 축하 순서는 이선경 교수의 사회로 테너 김희재, 소프라노 에리카 문, 수정교회 시온성가대, 제시 유 지휘자의 알토 색소폰연주, 김인순의 예배무용, CBSN 합창단 찬양 등의 은혜로운 무대가 이어졌다. 2018 제2회 세계찬양대합창제는 23일(주일) 오후 8시 카네기홀 아이작스턴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이날 합창제에는 연습된 9개 찬양대가 무대에 올라 은혜를 전한다. 합창제 수익금은 뉴욕, 뉴저지 일원의 소외된 장애인과 노숙인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어머니학교 자료사진

시애틀 16기 두란노 어머니학교 개설

성경적 어머니 상을 제시하고 여성성 회복을 통해 이 시대 어머니의 정체성을 정립시켜 나아가는 시애틀 16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6일(토)부터 14일(주일)까지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네 차례 만남을 통해 진행된다.

가정 회복을 통한 건강한 사회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는 '두란노 어머니학교'에서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어머니의 영향력', '기도하는 어머니/십자가의 사명' 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다.

주최측은 "어머니학교라고 해서 현재의 삶이 힘들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어머니들, 혹은 크리스천들만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서 자신의 삶을 성경에 비춰보고 한 여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어머니 학교를 소개했다. 또한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요즘 어머니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바로 알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초대하는 말을 전했다. 어머니학교는 나이와 결혼여부, 종교와 관계없이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일시: 10월 6일(토), 7일(주일), 13일(토), 14일(주일) (토 오후 6:00, 주일 오후 5:00) 문의: 김상미 (206.617.0125) / 이소영(425.772.0030)

시애틀 지역 교회 음향 워크샵 열린다

시애틀 지역 한인교회를 위한 교회 음향 워크샵이 오는 23일(주일) 오후 6시, 시애틀 비전교회(담임 안광진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교회 음향 사역자, 찬양팀, 음향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다. 사랑의교회 음향감독을 지낸 박경배 대표가 강사로 나서는 이

번 워크샵에서는 기초 음향의 이해, 음향 엔지니어의 역할, 음향 디자인, 마이크 원리, 강단 마이크 사용법, 무선 마이크 활용, 스피커, 앰프, 디지털 콘솔 등 장비의 활용 등 교회 음향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문의 : 이종표 목사 253-455-6781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예배 - 비폴중학교 (7가와 버몬트 크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사랑의교회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2세부터 양자며, 이단가정을 치료하며, 선교평영을 순종하는 교회
 사랑의교회센터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예배 오전 10:50 **새니킴 담임목사**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금부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8:00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아이**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강진웅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향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김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박현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여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전일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세각족 성경공부** 오후 1:00 **정병노 담임목사**
대예배 2부 오전 11:00 **종교개혁**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1, (213) 3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건물 옆에 위치)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박은중 담임목사**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에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초중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 (분당) (소매매일) 오전 11:0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공,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35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박효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라티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인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중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곽부한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순환 담임목사**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장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사랑과 화평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유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주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로 새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11:00 **김준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영아**, **유치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한여청년부** 오후 2:15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조용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김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찬양예배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아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iata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보기도회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찬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미션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중보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들)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방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라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이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530-4040/F. (310)530-8400/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주일 1부 오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1부예배 오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983-5887 Tel: (223) 837-0900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한기연-한교총 통합, 연내 사실상 불가능 전망

조직 운영 방향서 이견... 한기연은 이미 총회 일정 잡아



지난 8월 17일 한기연 통추위원장인 권태진 목사(왼쪽)와 한교총 통추위원장인 신상범 목사가 양 기관의 통합을 선언한 뒤 악수하던 모습.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이하 한교연)과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의 연내 기구 통합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계 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통합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실제 많은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기도 했으나 향후 조직 운영 방향 등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한교총은 3인의 공동 대표회장 체제로, 이는 한기연은 물론 지금까지 단독 대표회장을 고수해 온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의 생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한기연 안에 여전히 한교총을 통합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즉 "한교총은 그동안 한기총과 한기연 사이에서 일종의 중매자 역할을 자처하다 갑자기 법안화 하겠다며 세력화 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하나의 연합기관으로서 한교총에 명분이 없다고 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계 일각에서는 일부 교단들의 탈퇴로 한기연의 재정 상황이 열악한 점을 이번 통합의 배경으로 꼽기도 한다. 한기연의 일종의 교육지책이라는 것.

그러나 꼭 한교총과 통합하지 않아도 한기연이 일부 구조조정만 거치면 독자 노선을 구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적어도 재정 문제로 한교총과 통합하는 일은 없다는 것. 게다가 한기연은 오는 12월 4로 정기총회 일정을 이미 잡은 상태. 만약 이 자리에서 새 대표회장을 비롯해 집행부를 다시 구성하게 되면, 그야말로 연내 통합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을 선언했던 두 기관은 △12월 첫 주에 통합 총회를 개최한다 △양 기관의 회원은 모두 인정하되 공교회(교단)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통합총회에서 대표회장은 3명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이중 1인을 이사회 대표로 추대한다 등의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진영 기자

명성교회 측 "총회 결의에 불법성 내포... 법리적 부분 검토"



명성교회에서 특사가 진행되는 모습.

명성교회 측이 16일 저녁예배에서 '제103회 총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종순 장로는 "자원하여 총회에 참석해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 주신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며 "원로목사와 담임목사님을 위해 본당에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도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입장을 전한 이 장로는 "이리신 광교회에서 열린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에서 담임목사 청빙과 관련해, 총회가 우리 교회의 바람과 달리 여러 다른 결론을 내려 성도 여러분들께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명성교회는 102회기 총회 헌법위원회가 헌법 제28조 6항 목회대물림방지법에 대해 '개교회 자유권과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미 퇴환 자녀들을 제한할 법적 미비가 있으므로 즉시 수정·보완·개정해야 한다'는 해석에 기인하여 교회 청빙위원회와 당회가 공동의회 및 노회의 청빙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회 일부 목회자들은 이 청빙 절차에 대해 총회에 청빙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총회재판국은 8월 7일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판결 전에는 총회 헌법위에서 현재의 총회 헌법으로는 명성교회 청빙 절차를 제한할 수 없다는 최종 해석을 내렸다"고 했다.

이종순 장로는 "저희 명성교회는 규칙부와 헌법위원회 해석은 총회의 보 고사항이고 재판국의 판결은 선고함으로 그 효력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총회에서는 헌법위원회나 규칙부 보고를 받지만 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 자체를 다 취소해 버리고 재판국 판결에 대해서도 확정된 부분을 취소하는 결의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장로는 "이러한 행위들은 여러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판국의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은 아직도 살아있고 유효하며, 당회는 이런 여러 불법성에 대해 법리적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우 여러분들은 절대 걱정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갑절의 기도를 해 주시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는다"며 "더욱이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단체들이 근거없이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SNS에서 교회를 음해하려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행위를 당회가 엄중하게 처리해서, 더 이상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목사는 보고 후 예배 말미 "기도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 주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이후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반짝거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시며 보석같은 주의 종들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김진영 기자



보탐 웹 진 ©델러스 주 페이스북 캡처

워십리더이자 성경교사였던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경찰이 침입자로 오인해 발포

워싱턴 아파트를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경찰이 거주하던 주민을 침입자로 오인해 사살한 사건이 미국 델러스에서 일어났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델러스의 시내 고급 아파트 단지인 사우스 사이드 플라츠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여성 경찰이 26살 남성 보탐 웹 진(Botham Shem Jean)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들어갔다.

경찰은 보탐 웹 진을 침입자로 오인해 소지하고 있던 총을 꺼내 발포했다. 이후 가슴에 총을 맞은 진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망한 남성은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루시아 출신의 흑인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미국 아칸소주에서 기독교 대학을 졸업하고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으며 교회에서 워십리더이자 성경교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세인트루시아에 살고 있는 그의 어머니인 앨리슨 진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의 소식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을 때 믿을 수 없었다. 악몽처럼 느껴졌다”면서 “나는 총을 쏜 경찰을 판단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그녀를 용서한다. 그러나 왜 그녀가 내 아들에게 그런 일을 했는지 물을 필요가 있다. 내 아들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들의 설명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아들의 죽음과 관련한 인

종차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앨리슨 진은 “마주친 주민이 백인이었다면 백인 여성 경찰관이 총을 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보탐은 지난 2016년 아칸소주에 있는 사립 기독교 학교인 하딩 대학교(Harding University)에서 회계 및 경영 정보 시스템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보탐은 캠퍼스와 캠퍼스 행사에서 자주 예배를 인도해왔다고 한다. 브루스 맥래티(Bruce McLarty) 총장은 보탐과의 생전 추억을 나누기도 했다. 그는 “보탐에게 강의 중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그 강의는 오래된 찬송에 대한 주제였다. 그 찬송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그였지만 열정적으로 인도했다. 알고 보니 세인트루시아에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옛 찬송가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했던 것이었다.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그는 ‘굿뉴스 싱어즈’라는 아카펠라 그룹의 멤버였다고 한다. 학생 지인들에 따르면 “보탐은 영성있는 리더였으며, 관계와 우정에 매우 열정적이었다. 그는 훌륭한 학생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과실치사 혐의로 구금된 경찰 가이거는 텍사스 주 경찰(레인저스)의 손을 떠나 대배심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배심에서는 최고 징역 20년까지 처할 수 있는 과실치사보다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내다봤다.

이미경 기자

존 파이퍼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인가요?”



존 파이퍼 목사

응답이 없는 기도로 인해 고민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존 파이퍼 목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는 19세기 영국 복음 전도자 조지 물러와 다시 만날 것을 권유했다고 13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11일 존 파이퍼 목사의 팟캐스트를 통해 한 남성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 했고 성경을 충실히 읽지만 친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담하고 있다”고 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에 대해 “아무도 조지 물러보다 기도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주지 못했다”면서 “조지 물러는 영국에서 고아원을 창립하고 운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관련한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러는 그것을 부인했다”면서 “물러는 그의 인생과 사역의 과정에서 기금을 요구하지 않고 기도 응답으로 거의 150만 파운드(약

2백만 달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물러는 왜 20년 동안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어떤 기도는 수천번 응답되었는지 설명했다. 요한일서 5장 14-15절을 주의 깊게 읽으라.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고 나머지 절만은 ‘하나님의 주권 의지에 따라’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존 파이퍼 목사에 따르면 물러는 돌봐주는 고아의 필요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초를 두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존 파이퍼 목사는 “이것은 성경의 명백한 약속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물러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믿었다”면서 “물러는 또한 어떤 사람을 위해 50년간 기도를 한 후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보게 되었다. 인내심을 발휘하는 믿음 그 자체가 선물”이라고 말하며 기도를 계속하기를 격려했다.

이미경 기자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정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카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생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사바하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아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문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생부 오후 2:00

앨버틴온누리교회
다들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앨버틴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하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온평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강만능교회 세계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입으라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OSEPH SU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주님을 향한 주님의 향기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 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 대학부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9: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치,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교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1부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 대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치,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곽건섭 담임목사

에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명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년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중고등부,EM 오후 12:15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3-0685 www.lasaehan.com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청년부 예배 오후 1:00 목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교회학교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s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아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음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채동선 담임목사

마음이가난한사람들의교회

1818 S. Western Ave., LA, CA 90006
T. (213)352-2832 www.magachurch.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영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만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믿음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새벽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유아,유치,유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김현인 담임목사

남가주든든한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는 공동체

1645 Beverly Blvd., LA, CA 90026
T. (213)481-2779 lasolidrock@g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고 되게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님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영아,유아,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ll.church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00 www.nasungchurch.net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주일 성미예배: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c.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금)
중고기도회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845-5431 F. (818)845-1683 / bkchurch.org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새벽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찬양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음날) 7:00am
화요일새벽기도회 7:00pm 토요일찬양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20년 만에 30개 캠퍼스에 8만 5천명이 출석하는 교회



LIFE CHURCH

오는 9월 30일 아칸소 주 로저스에 30 번째 캠퍼스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라이프 교회(담임 크레이그 그로셴 목사)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다. 올해 말까지 2개의 캠퍼스를 더 세울 예정이라고 한다.

유버전 앱을 개발한 라이프교회의 이노베이션 리더인 바비 그룬월드(Bobby Gruenewald) 목사는 “최신 캠퍼스는 새로운 대도시로 사역이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역이다. 우리는 지난 몇년 간 새로운 도시 지역을 개척해왔다”고 밝혔다.

그 도시에는 캔자스의 오버랜드 파크(Overland Park)와 위치타(Wichita), 네브라스카의 오마하(Omaha)가 포함된다. 이달 후, 라이프교회는 스프링필드에서 31 번째 캠퍼스를 오픈한다.

1996년 미주리 주에서 처음 댄스 스튜디오를 빌려 소수의 사람들이 크레이그 그로셴(Craig Groeschel) 목사의 인도 하에 예배하면서 시작된 라이프교회는 현재 8만 5천여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바비 그룬월드 목사와 라이프교회의 성장 및 멀티사이트 사역에 대해 인터뷰했다.

그룬월드 목사는 30번째 캠퍼스를 세우게 된 소감과 이같은 성장에 대해 “지난 몇년 동안 몇 가지 중요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몇 개의 캠퍼스가 추가됐으며 그 속도는 높아졌다. 캠퍼스의 숫자와 출석인원 등 주요 통계 수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우리는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흥미진진한 사건”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멀티사이트 교회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룬월드 목사는 “우리는 지역 캠퍼스 팀과 캠퍼스를 담당하는 목회자를 둔다. 캠퍼스 규모에 따라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소그룹에 초점을 맞춘 현지 스태프를 두고 있다. 이 팀은 5명에서 최대 20명 사이의 크기”라며 “새로운 위치에서 캠퍼스를 시작할 때 대략 5명에서 6명의 풀타임 스태프를 고용한다. 그리고 대도시 지역에 있는 경우 지역사회에 맞추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설교는 동영상상을 통해 각 캠퍼스에 전달된다. 우리는 ‘메인 캠퍼스’라는 단

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방송을 담당하는 캠퍼스조차 그 지역에만 국한된 스태프가 있다”면서 “방송 담당 캠퍼스는 중앙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 지원팀은 크레이그 목사, 저, 다른 팀원들이 중앙 관리 서비스와 리더십을 담당한다.

이 그룹은 어떤 캠퍼스 팀과도 독립적이다. 우리는 캠퍼스에 대한 책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라이프교회의 멀티사이트 운영 모델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미국에서 텍사스 ‘빌리지 교회’처럼 일부 멀티사이트 교회는 더 많은 자치권을 캠퍼스에 이양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그룬월드 목사는 “그것이 트렌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접근 방식인지 충분히 알지 못한다. 내가 알고 있고 배운 것은 멀티사이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접근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접근 방법이 분명히 있다. 일례로 모든 지역 교사, 설교자가 모두 같은 주제로 가르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교회의 실제 이름은 다르지만 가르치는 내용을 똑같은 교회도 있다. 이같은 교회는 지역 사회의 해당 지역에만 국한된 이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노스포인트 교회(앤디 스탠리 목사가 이끄는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라고 했다. 그는 “나는 멀티사이트 교회를 운영하는 다양한 성공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 역시 우리의 정체성과 일관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몇년 간 조금씩 바뀌었다. 나는 멀티사이트 교회를 운영하는 ‘올바른 길’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공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불과하다’라는 라이프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그는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출석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것이다. 나는 그들을 초대할 것인데 그들이 유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이 완전히 헌신적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비전통적인 접근법을 가졌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복음전도에 특별히 헌신적인 교회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매주, 매 예배마다 아주 명확한 복음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미국 기독교인 여성, 낙태 반대글 올렸다가 강간·살해 위협 당해

미국의 한 여성 기독교인 칼럼니스트가 낙태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가 수 차례 살해 위협을 받고 피신 중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PJ 미디어 소속 기자인 테니스 D.C 맥칼리스터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날 브레트 카바노프 판사가 이끄는 대법원 선고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겼다.

“미국가족계획협회와 코드 핑크 낙태 활동가들은 낙태 히스테리의 근원에는 무책임한 성관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시위를 했다. 섹스가 그들의 신이다. 낙태는 그들의 성찬식이다. 여성들이 세계 문명화의 정점에서 벗어나 인간성을 상실하는 부패의 늪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혐오감을 느낀다.” 그녀의 발언에 많은 낙태활동가들이 분노했고, 그녀의 SNS에는 폭력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맥칼리스터는 PJ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안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또 강간을 하고

목을 졸라 죽이겠다는 위협도 있었다. 최근 위협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협은 설득력이 없는 트위터 위협이 아니다. 우리가 문화전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과거 강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현재는 가족들의 요청으로 현재 잠시 동안 SNS를 중단한 상태. 그러나 곧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녀는 현재 경찰의 보호 아래에서 일하고 있으며, 경찰이 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칼리스터는 “낙태를 반대하는 여성들에 대한 증오심에 대해 우리가 연대하여 행동하길 기대한다. 우리가 연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공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더 깊이 생각한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달리 다른 여성들을 비난하는데 대한 정당성을 갖고 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반응을 넘어 변화를 창조하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칼 메닝거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때 문제를 싫어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정말 목회란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것이 목회입니다. 어느 날 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면 문제를 환영하고, 문제로부터 성장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연구하는 중에 모든 기적은 문제 때문에 생긴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문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 물이 단 물이 되는 기적은 모두 문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가나산의 잔치의 기적도,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작은 문제는 작은 기적, 큰 문제는 큰 기적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재료로 삼아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를 통해 더 잘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약 1:5).

문제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더욱 각성하게 됩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문제를 풀다가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문제를 잘 풀다 보면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풀어주는 복을 누리게 됩니

다. 저는 문제를 통해 기적을 경험한 후로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를 과감하게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 속에 기적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목회란 기적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지혜롭게 반응할 때 사건은 축복이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해보면 비극적인 사건에 잘 반응함으로써 그들의 생애가 역전되는 것을 봅니다. 사건은 그냥 사건에 불과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어떤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다만 사건에 잘 반응하도록 하십시오. 모암 여인 롯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보아스와의 만남을 주신해 주심으로 이전보다 더 복된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중에 롯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롯데처럼 어려움 가운데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생존이 있어야 아름다운 미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슈퍼 서바이버"(super survivor)라고 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슈퍼 서바이버"입니다. 그들은 이민자들로서 끝까지 살아

남았습니다. "슈퍼 서바이버"의 특징은 변화에 잘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실력이란 적응 능력입니다.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를 즐기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잘 살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리고, 비울 것을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과 동행한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배의 짐, 가구, 식량, 구명배, 나중에는 배까지 버렸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 살아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서바이벌"(survival, 생존)이 있을 때 "리바이벌"(revival, 부흥)이 가능합니다.

반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반응만 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창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응만 하는 삶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창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 더 아름다운 미래, 더 복된 미래를 창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결과를 낳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비전 센터를 건축하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비전 센터의 건축도 첫 삽을 뜨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막힌 우연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자주 제게 기도를 부탁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새벽제단을 쌓으시는 기도하는 권사님이셨는데 일주일이 멀다하고 외손자의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손자의 이름이 잊히지 않습니다. Timothy였습니다.

주니어 하이스쿨 학생이던 Tim은 사정이 딱한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별거하다가 결국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심장에 병이 있어서 툭하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곤 했습니다. 당연히 뚜렷한 소득이 없어서 굶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차편도 없어서 학교 갈 때나 교회 갈 때면 거리를 걸어가기 일쑤였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노인 아파트에 사시며 정부 보조비를 받고 계셨던 권사님 입장에서는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생활보조비를 꺼여서 남긴 아주 작은 돈을 톼툼이 부쳐주는 정도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권사님은 손자 Tim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절박해서 혼자 하는 기도가 부족하다 싶어서 제게도 수시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 저는 감사한인교회로 사역을 옮겼고, 권사님과의 소식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틈나는 대로 Tim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권사님의 사돈이 본 감사한인교회 소망회에 소속된 집사님, 권사님 내외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매마침 지난주 목요일에 사돈 권사님께서 병환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Tim의 이모와 이모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지내던 권사님께서는 딸과 사위, 소천하신 권사님께서는 아들과 며느리 되시는 분들이 제게 장례예배 인도를 부탁

하시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Tim과 권사님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되신 것입니다. Tim의 이모 되시는 집사님 내외분은 제 간증을 듣자마자 자신의 어머니의 간증이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만남을 가졌고, Tim에 대한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Tim은 이후,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상처도 치유 받고, 신앙지도도 잘 받았을 뿐 아니라, 주경야독하며 USC 대학을 졸업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 흘렸던 기도 제목들이 먼 훗날, 놀라운 결과물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의 미래는 쌓인 기도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 어딘가에 쌓였다가 하나님의 때에 믿는 자들의 삶에 풀어 집니다.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쌓으십시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말입니다.

12번째 선수가 필요합니다



박성근 목사
남가주 새누리교회

미 대학축구에 "12번째 선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축구는 원래 11명이 뛰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12번째 선수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용어는 텍사스 A & M 대학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1922년 1월 2일 달라스에서 디시 클래식 결승전(Cotton Bowl의 전신)이 열렸을 때 그날 따라 많은 텍사스 A & M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후보들을 내 보냈지만 그들도 부상을 당해서 더 나갈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있으면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치는 응원석에 앉은 사람들을 바라 보았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나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한 학

생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선수는 아니지만 자신이 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옆의 다른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더니 관중석에 앉아있던 모든 학생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선수들이 저토록 싸우고 있는데 구경만 하며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텍사스 A & M이 대승리를 했고 사람들은 이들을 12번째 선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그 학교의 전통이 되어 지금도 그들은 풋볼 시즌이 시작되면 경기 내내 일어서서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12번째 선수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순간을 통과할 때 구경만 하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역 최전방에서 땀을 쏟으며 뛰는 용사들을 위해 자신도 작은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경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빛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섬겨야 하고, 누구는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다. 다 함께 섬기며 동역해야 합니다.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번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행복재단(한영제)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일보, FHM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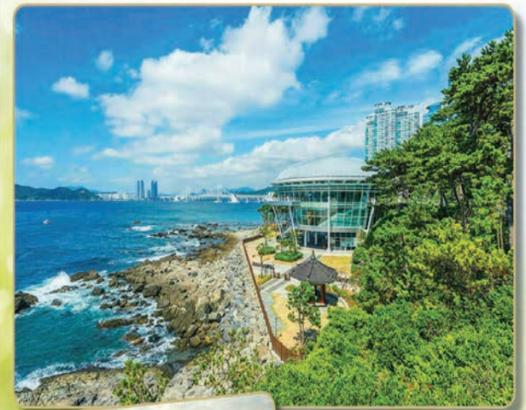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가을 맞이 고국일주 여행

그리운 고국으로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모시겠습니다.



일정

- 고국방문 7박8일 한국일정 (10/6-10/13) \$1,140 + 항공료 (특급호텔, 식사, 가이드팁 포함)
- 음션 베트남 3박5일 베트남일정 (10/2-10/6) 고국+ \$450

www.KorusTour.com
문의: 213) 503-6196 제시카
213) 842-7079 JAY LIM



미스바 화요 여성 찬양예배

10월 2일 첫예배
LA 시티교회
매주 화요일
저녁 7:30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문의: (213)344-6313
문정란 목사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 732-4669
 VALERO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o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o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기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손가락 루마티스 관절통증
 발가락 퇴행성 관절통증
 마디관절 손목, 발목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치질(항문하혈, 통증)
 •독소제거, 혈관 청소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불임증 (자궁축, 하혈)
 •TMJ 턱관절 장애
 •우울증
 •관절염, 다리 쥐 오름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만성두통, 요통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숨겨진 **20야드**를 찾아드립니다
 골프클럽의 성능 70%는 샤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휘텍골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名品** 클럽을 가져 보세요!
Private Lesson
 단기간 집중 골프스윙 완성
 스크린 통한 구질 분석, 자신의 스윙을 모니터로 보며 교정
 Fitting Technology GOLF
FitTec
 MATRIX FOURTEEN
휘텍골프 피팅 스튜디오
 213.327.4080 / 213.315.5179
 3050 W. 7th St #101 Los Angeles, CA 90005
 세상에 유적 하나...
 당신만을 위한 맞춤클럽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해야 믿을 수 있다’ <묻다, 믿다, 하다> 펴낸 손성찬 목사



묻다, 믿다, 하다
손성찬
조이북스 | 264쪽

“신앙 여정에서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아니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손성찬 목사(이음교회)의 책 <묻다, 믿다, 하다>는 부제처럼 신앙에 있어 의심하고 고민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과정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믿는다는 주장 하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장한 무관심”이라며 “의심은 상생을 위한 불편함이지만, 무관심은 하락을 위한 방조이다.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묻다, 믿다, 하다>는 저자가 신앙과 삶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SNS에 연재한 글 100편을 묶은 에세이다. ‘놀아 볼 만큼 놀아 본 자는 복이 있나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교회이니 이제 그만 가면은 벗어나도 됩니다’, ‘목사가 에쿠스를 타고 될까?’ 등 제목에서부터 저자의 위트가 느껴진다. 다음은 손성찬 목사의 이야기.

출간의 동기와 소감이 있으시다면.

“저는 글쓰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제 유일한 글쓰기는 설교문 작성에 전념했기에, 진심으로 글쓰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며 함께 동역하는 형이 당신의 목회철학과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글 모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글쓰기를 결심했습니다. 그 때 알게 된 김광성 목사님(행신침례교회)의 조언으로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에 글을 올리기로 시작했고 100여개 정도 썼는데, 그 중 일부 글들을 모아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많은 분들과 소통해 오셨습니다. SNS 글이 바탕이 된 책인데,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내용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출판사에서 약간 B급 정서의 표현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SNS에서 대중들과 소통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급적 보존하려 한 것 같습니다. 다만 페이스북은 특성상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기에 인쇄된 책으로 보는 감성은 전혀 다를 수 밖에 없고, 특별히 편집할 때 중간 중간 이미지를 삽입하여 잠시 쉬어가며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개척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과 예배드리고 계신가요.

“제 삶의 여정과도 관련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온갖 결핍과 박해와 교회의 분란 등을 경험했기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유일하게 관심있었던 주제가 ‘교회’였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지요.

또 전통 교회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고착화된 구조나 리더십 문제가 오히려 본질을 압도하는 경우들을 왕왕 접하다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회론에 대한 실천적·교리적·성경신학적 의미에서의 다양한 도서들과 사례들을 접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미셔널 처치(missional church)’ 개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 났다는 생각입니다. 건물이나 조직 혹은 단순한 사람들의 연합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위임령, 그리고 창조명령의 수행, 즉 미션(mission)이 구현되는 자리와 사람들에 교회됨이 있다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한때는 전통적 교회 모델을 버리고 이종직과 사회적 사업을 통해 세상과의 접점을 늘리는 사역을 할까도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이미 제가 걸어온 길이 대안적 사역을 하기에는 ‘목사’로서의 훈련을 받았고, 그 자리에 제게 주신 소명과 달란트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선교학이나 교회성장학에서도 이야기하듯, 1만명이 모이는 한 교회보다는, 1백명이 모이는 1백개 교회가 훨씬 더 역동적이고 사회적 접촉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 공감해,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교회 개척’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두렵고, 확률상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써, 그 아픔과 결핍과 가난을 다 직접 겪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이게 옳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는 저만의 결단 아래 개척하기로 작정하고 준비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 개척교회 목사가 된 저의 사례 자체가 기적인 듯 합니다.(웃음).

아직 설립예배도 드리기 전입니다. 3월부터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렸고, 지난 7월부터 15명 정도 되는 이들과 함께 매주 주일 오후 4시 서울 등촌동에 있는 카페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직장인들입니다. 본래 좀 더 양육하고 준비해 가을부터 예배를 시작하려 했는데, 제가 예배 안 드리면 교회 안 나갈 것 같은 인생들이 대부분이라(웃음), 예상과 달리 일찍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말지 않지만, 사연이 다양합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 중엔 완전 초신자도 있고, 가나안 성도로 지내다 저와 만나 신앙적으로 교제하다 함께하게 된 이도 있고, 예전에 제게 양육을 받았다가 ‘함께하고 싶다’며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로 청년들을 만나시는데,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신앙적 고민은 무엇이고, 주로 어떻게 조언하시나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남자 청년들은 거의 성(性) 문제인 듯합니다. 남녀 불문하고 진로와 취업 문제는 공히 겪고 있는 문제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도 꽤 됩니다.

성 문제에 관련해서는 가급적 위로합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 죄 뉘를 확인하고 해결을 위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분은 판단보다는 위로하지요. 만혼이 준비한 사회 속에서 성적 본능이 충동하는 지점, 그리고 성적 문화가 지배한 이 도시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진로와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하나님은 내가 뭘 선택하든 관심 없으시다’고 이야기하지요. 물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너의 선택보다 너 자체에 관심 있으심’을 부각시켜

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그저 공감할 뿐이고, 그건 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부수적 신앙 윤리적 문제에 대해 묻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세대가 지나도 율법주의적 신앙관에 얽매어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신앙 자체가 부재하여 겪는 혼란도 있어 보입니다. 안 믿는데, 믿는다고 착각하여 겪는 혼란을 말합니다. 특히 모태 신앙들로부터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자기 객관화 작업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조심스레 조언합니다.”

가나안 성도를 위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좀 심한 말이지만 진정 그러하든 오히려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용서를 구하고, 기다려 줄 수밖에요.

다만 진정성을 담지하고, 그들을 복귀시켜야 하는 수단이나 대상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재단하기 이전에 용서를 구하고, 대화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상에 너무 질려서 그리 된 것뿐이니까요. 충분한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비전과 목사님 개인의 비전이 궁금합니다.

“교회의 비전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프로그램으로서의 제자훈련이 아니라 전인적인 제자 세우기에 헌신해, ‘제자가 제자 삼는 일’을 구현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와 친한데 교인들 서로는 덜 친해서, 함께 보낸 시간들이 조금 쌓이면 모두 함께 신앙의 기초부터 다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저 자신이 일대일 대화를 선호하고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

문에 그렇게 제자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믿는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회심 사역과 제자화 사역에 매진하려 합니다.

다만 너무 강렬한 비전과 목표가 교인들을 압도하는 우를 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비전 운운해도, 결국 성도들의 현상과 수준에 맞추어 모델을 구현하고, 반 발짝 앞서 인도하고자 할 뿐입니다.

예전부터 ‘한국교회’라는 터전에 대해 가슴 아파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저 작은 돌맹이 하나라도, 저와 저희 교회와 그 사역들이 물결을 일으키길 바랄 뿐입니다. 거대 담론과 미래 시점에 대한 얘기보다, 현재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최근에 감동을 주었던 문구가 있네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목사님만의 ‘독서법’ 이 있다면.

“아직 독서법을 전수하기에는 제 독서량이 선배님들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남의 독서법은 참고할 뿐이고, 많이 읽다 보면 자신만의 독서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역지로 남들이 추천하는 방법이나 장르에 따라갈 필요 없이, 우선 관심 가는 주제의 책들로 다독하다 보면 자기에게 적절하고 적합한 ‘루틴’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자신에게 빈약한 주제들을 그 사이에 한 번씩 끼워넣어 읽다 보면 좋지 않을까요.

우선 습관이 생겨야겠고, 그 전에 책이 좋아야겠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저 자신이 너무 무식하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 그 때부터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10여년간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며 공부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제 인생의 여정을 떠올리며 적어간 글들입니다.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홀로 숙고하고 사색하고, 항상 기존의 것을 다른 관점으로 달리 보길 원하는 저의 습관도 물씬 반영된 듯 합니다. 동시대에 살며, 실존적 믿음과 몸담고 있는 교회 현장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대웅 기자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2018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9월 27일 개강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WWW. CTUIA.ORG

<미스터 선샤인> '김희성' 처럼... 구한말 푸른 눈의 언론인

우리나라 첫 선교사를 만나다 (4) 대한매일신보 창간 언론인 베델



베델의 모습. ©국가보훈처

tvN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선교사'가 극의 주요 흐름을 좌우했다. 종살이하던 주인공 '유진 초이(이병헌)'은 어린 시절 쫓기다 선교사 '요셉'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해병대 대위이자 미 공사관 영사대리로 고국에 돌아온다.

선교사가 의병활동을 도우려다 죽음을 당하자, 그를 은인으로 생각하던 주인공 유진은 진상을 파헤치면서 의병들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된다. 그녀가 하면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던 시대, 여자 주인공 '고 애신(김태리)'는 선교사가 세운 학당에서 여선교사로부터 영어를 배우게 된다. 이처럼 구한말 선교사들은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 같던 조선인들에게 등불 같은 존재였다. 왕인 고종도 선교사들을 신뢰했고, 선교사들은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했다. 모처럼 대중매체에서 그 시대 기독교를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이 때, 구한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온 주요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을 책과 문헌, 영상 등으로 돌아보고자 한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중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조선인 김희성(변요한)은 한량처럼 살아가다, 글의 힘을 믿고 신문사를 세워 '애국도 매국도 모두 기록하는' 일을 시작한다.

'푸른 눈의 선교사들' 중에서도 조선을 위해 글의 힘으로 싸웠던 이가 있었다. 영국 출신의 언론인 어니스트 베델(Ernest T. Bethel)은 항일 민족지 '대한매일신보'의 창설자이자 초대 사장을 지냈고, 일본의 침략행위를 맹렬히 비판하고 규탄했으며, 1905년 을사조약 체결 후

고종 황제의 친서를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하여 일본의 침략 만행을 국내외에 폭로한 인물이다. 책 <양화진 선교사 열전>에서 전택부 선생은 "독립신문이 우리나라 개화기 '민중의 등대' 구실을 했다면, 대한매일신보는 항일투쟁기 '민중의 방패, 민중의 대변자' 구실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1872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태어난 베델 선교사는 1904년 러·일 전쟁 때 런던 '데일리 크로니클' 특파원으로 처음 내한했다. 그런 그가 어쩌다 한국에 눌러앉아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



대한매일신보 창간호. ©국가보훈처



대한매일신보 편집국 모습. ©국가보훈처

만행을 고발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는 글들을 게재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후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그 유명한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논설을 실으면서 일본군에 의해 신문 발간이 일시 정지되자, 베델의 대한매일신보는 검열을 견내지 않고 장지연의 행동을 찬양하고 호외까지 발행하면서 일본을 규탄했다. 또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졌던 국채보상운동의 지원금 집합소가 되기도 했다.

이에 고무된 고종 황제는 모든 통치권이 박탈당한 상황에서 1906년 2월 10일 발령인 베델에게 "신문과 통신의 전권자로 특히 위임한다"는 특별위임장을 내리고 비밀리에 운병비로 매달 1천원을 하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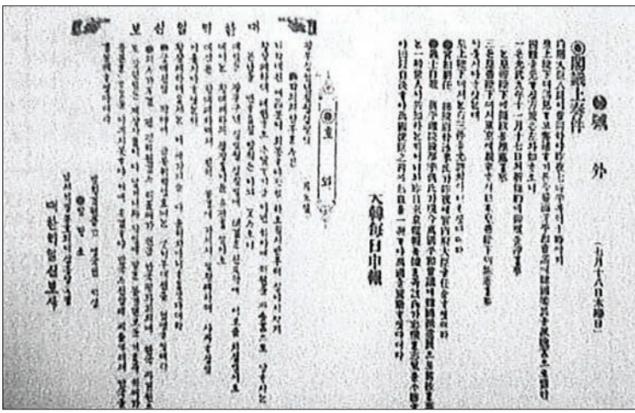
일제는 베델과 대한매일신보를 참을 수 없었고, 조선 침략의 원흉이도 히로부미는 베델의 국외 추방을 위해 행동을 개시했다. 특히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17일자에서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쏘아 죽인 기사를 찬양한 것에 대해, 주일 영국 대사에게 강력 항의한다. 영국 외무부는 이러한 일본의 공갈에 굴하지 않았지만, 서울 주재 영국공사관 고등법원은 결국 베델의 범죄 여

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1908년 6월 15일자로 베델에게 3주간의 금고형과 6개월간의 근신을 명했다. 베델은 상하이에 끌려가 3주간 금고형에 처해 있다 서울로 돌아왔지만, 오랜 일제의 탄압과 경영난에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였다. 결국 그는 금고형 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1909년 5월 1일, 37세의 나이로 서대문 자택에서 서거했다.

베델은 죽기 직전 "나는 죽지만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라"는 유언을 남겼고, 유해는 다음 날인 5월 2일 양화진 외인묘지에 안장됐다. 5월 5일 동대문 밖 영도사에서 추도식이 거행됐는데, 각 사회단체 대표 4백여명이 참석했다. 비문은 장지연이 순 한문으로 지었다. 이 비문은 일제가 칼과 망치로 내용을 다 지워버렸으나, 해방 20년 후인 1964년 언론인들이 성금을 모아 원 비문을 새긴 새 비석을 세웠다.

우리나라 정부는 1968년 베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그는 2014년 8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되기도 했다. 베델의 유해는 현재 서울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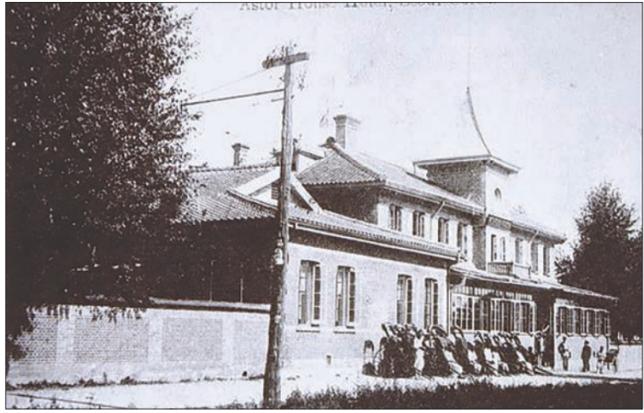
이대웅 기자



헤이그 밀사 파견에 대한 대한매일신보 호외. ©국가보훈처

게 됐지는 안타깝게도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한국명 배설(裵設)로도 불리는 베델은 한국행 4개월만인 1904년 6월 29일 대한매일신보 영자 신문을 만든 뒤, 7월 18일 창간호를 냈다. 당시 러시아를 견제하던 영국은 일본과 동맹 관계에 있었으나, 그는 영국인임에도 조선에서 행한 일본의 야만적 침략행위를 목격하고 참을 수 없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조선을 돕기 시작했다. 베델은 양기탁, 박은식, 신채호 등 민족지사들을 신문의 주간으로 임명해 일제의



그가 서거한 아스토 하우스 호텔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권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e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원예고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참된 목회, 참된 교회를 꿈꾸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18)- 김교 목사

기백과 열정이 있는 젊은 목사를 만나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기자는 야성을 가지고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동분서주하는 김교 목사를 만났다. 그는 조선족 출신이다. 한국 교회의 사랑과 영향을 받으며 자랐고, 한국에서 신학교육도 받았다. 현재 LA로 건너와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한어권 동포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며 교회를 세워 가고 있다.

개척교회 목사이지만 김 목사는 야성이 넘친다. 사심이 묻은 인간적 도움은 단칼에 거절한다. 고생을 각오한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일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에 기자는 한여름 냉수를 마시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다. 옳고 바른 길로 가는 구도자의 야성이 있는 젊은 목사를 만나며 밝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본다.

어린 날에 품었던 영생의 소망

김교 목사는 11살에 아버님을 잃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삼촌이 복음을 전했다. 김교는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쉽게 복음을 받아 들였다. 아버님이 작고하신 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영생에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신앙생활에 어린 김교는 숨이 물을 흡수하듯 진리를 수용하며 은혜를 받았다.

그 시절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 퇴학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 어린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핍박도 많이 받았다. 가까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먼 동네 교회를 몰래 다니기도 했다. 교통도 불편한 중국 땅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여하간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다.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불타던 시절이었다.

훈련과 실습의 시절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연변 두레마을에서 공동체 훈련을 받았다. 두레 마을 안에 있는 나눔의 집에 합류하여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시절 신앙의 본질과 신앙생활의 실재를 배웠다. 돌아켜보면 그 시절은 환상

적인 믿음의 환경을 가졌다. 믿음의 공동체에서의 생활은 한국 교회를 배우고 한국 교회 문화를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아울러 이 훈련을 통해서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확인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부르심을 따라서

두레 마을 공동 생활 훈련을 마치고 상해로 옮기게 되었다. 중국 교회를 섬겼다.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셨다. 중국 교회에서 찬송가를 인도하며 열심히 봉사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상해에서 '조선족 사랑의 집' 사역을 하였다. 사랑의 집의 섬김은 종합적 사역이었다. 사람도 관리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심지어 설교도 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티베트로 건너가게 되었다. 티베트에서 건너가 사역하며 선교하는 동안 신학 교육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신학교에 진학을 한다. 본격적으로 신학 수업을 하면서 훈련을 받게 된 것이다. 김 목사는 이렇게 시작한 신학교 교육을 오래 받는다. 여러 신학교에서 다양한 신학 교육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신학교에 재학하며 신학 수업을 쌓은 것이 훗날 김 목사가 다양한 지역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신학교마다 할당된 지역이 있어서 특정 신학교 출신 목회자는 특정된 지역에서 목회해야 한다)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었다.

교회들 개척과 목회

김교 목사는 상해 사랑의 집 사역을 시작으로 여러 지역, 여러 교회들을 섬겼다. 상해 사랑의 집 사역은 90여명의 성도들을 관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비중 있는 사역이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김 목사는 전심으로 목양했다. 신장이 약한 성도를 만나면 신장기증 방법을 찾았고, 간이 좋지 않은 성도를 만나면 간이식 방법을 찾았다. 나름대로 보람과 성취감도 있었고, 기쁨도 넘쳤다.

김교 목사는 개척을 4번이나 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과정과

정이 하나 같이 힘들고 어려웠다. 그러나 소중하고 복된 기회들이었다. 개척의 경험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다. 우선 김 목사 자신에게 훈련 기회였다. 영혼의 결실과 성장과 성숙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영혼의 성장을 보는 축복을 누렸다. 교회를 세우는 기쁨과 보람은 덤으로 주신 축복이었다.

개척을 하기도 하고 초소형 교회도 섬겼고 티베트에서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맘껏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특별히 김 목사는 하나님 은혜로 젊은 나이에 큰 교회 담임 목사의 경험도 있다. 연길 조양교회에 청빙을 받아 목회한 귀한 경험이 있다.

김교 목사는 다양한 민족들을 섬겼다. 중국인을 섬겼고, 티베트인들도 섬겼고, 조선족은 물론 서울에서 한국인도 섬겼다. 각 나라 백성들을 섬김 마음을 주셨다. 지금도 조선족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개척을 하고, 정기적으로 중국인들을 위한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한국을 배우며...

김교 목사는 여러 이유로 중국의 여러 신학교에서 수학했지만 한국 신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도 가졌다. 침례신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간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장로회신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석사(Th M)과정에서 선교신학을 공부했다. 한국 신학과 한국 교회를 이해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아울러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교회들을 섬겼다. 부목사로 혹은 선교 목사로 섬긴 교회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지원을 받았다. 한국 미디어 선교회에서 200여개 이상의 콘텐츠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다. 물론 김 목사 혼자서 번역한 것은 아니고 많은 스태프들과 자원 봉사자들을 통해서 번역하는 일에 총 책임을 맡아 번역 작업을 진두지휘한 것이다.

비전과기도 제목!

김교 목사는 몇 가지 기도제목들을 갖고 부르짖는다.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심장에 담고 기도하며 실제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김교 목사

몸부림치는 기도의 제목들이다.

첫째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김교목사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자랐다. 중국학교와 중국 신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중국인 교회에서 목회도 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목마름을 주셨다. 특히 온 세계에 흩어진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남의 차를 빌려 타고 차이나타운을 간다. 잠자는 차이나타운을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둘째 '조선족 교회들의 부흥을 주옵소서!' 김교 목사는 조선족이다. 당당하게 자신이 조선족임을 밝히는 이유는 조선족에게 주신 사명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강한 조선족 교회들이 많지 않다.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다. 김교 목사는 자신이 세워가는 월드 미션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조선족 교회들을 위해 기도한다.

셋째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데 쓰임 받게 하소서!' 김교 목사는 연변에서 목회하며 탈북자들을 보았다. 그들의 참혹한 현실을 듣고 그들을 가슴에 담았다. 그리고 그들의 고달픈 삶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방법도 모르고 방안도 없지만 기도한다. 북한 동포들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넷째 '섬기는 월드미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주옵소서!' 김교

목사는 현재 월드미션교회 담임이다. 모든 관심과 마음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 이제 시작한 교회이지만 6개 교회들과 월드쉐어를 선교하며 돕고 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요 사랑 공동체다. 김 목사가 기도하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사람들의 수적 부흥에 국한되지 않는다. 선교 공동체로 성장과 부흥,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부흥과 성장이 있기를 기도한다. 바른 교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교회가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지 못해서 사회로부터 빛과 소금됨을 잃어 버렸다. 김목사는 월드미션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바른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

기자가 김교 목사를 처음 만난 날 SNS에 그날의 사진을 올리며 '나는 오늘 진짜 목사를 만났다'라고 했다. 그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헌신하며 가난과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기자는 그를 진짜 목사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자는 김교 목사가 진짜 목사의 자리를 지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한다. 월드 미션 교회가 건강한 선교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서기를 기도한다. 김 목사가 지금의 순수성과 야성을 끝까지 지키기를 기도하며 이 글을 마친다.

강태광 편집위원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ina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이민법
 낯선 땅에서 인권된 신분과 인권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법정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님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동환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부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방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권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이와 법적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보여지는 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치지기가 이루어 자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무료 체험을 제공합니다.
 무료상담 / 010-4111-4444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 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약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 37% 미세혈관 합병증
- 21% 당뇨병 관련사망
- 14% 심장마비
-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